

'면역회피' BA.5변이 검출률 35%로 상승

국내 검출 줄었지만 해외유입 급증 "증가세 정체...점유율 계속 늘것"

코로나19 재유행을 이끄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검출률이 1주 만에 28%에서 35%로 상승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3~4명은 BA.5 감염자인 셈이다.

국내 검출률은 24.1%에서 23.7%로 줄었지만 해외유입 검출률이 49.2%에서 70%로 크게 늘었다. 방역 당국은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주 BA.5가 260건 추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 120건, 해외유입 140건이다.

국내 검출률은 23.7%로 직전주 24.1%보다 0.4%포인트 줄었다. 해외유입의 경우 70%로 지난주 49.2%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내외를 합친 통합 검출률은 28.2%에서 35%로 6.8%포인트 상승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주 BA.5의 증가세가 빨라 굉장히 빠른 시기에 우세화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주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어 1~2주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주간의 검출률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해외 유입 증가세를 봤을 때 앞으로 BA.5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BA.5는 면역회피성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재감염 또는 돌파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 단장은 "면역 회피 정도가 기존보다 더 높기 때

문에 재감염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BA.4 변이 24건, BA.2.12.1 변이 80건도 추가 검출됐다. 누적 검출수는 BA.2.12.1 432건, BA.4 103건, BA.5 655건이 됐다.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가 40.3%, BA.2가 24.1%, BA.5가 23.7%, BA.2.12.1가 5.1%, BA.4가 3.2%다.

해외 유입 검출률은 BA.5가 70%로 가장 많고 뒤이어 BA.4 변이 9.4%, BA.2 변이 8.2%, BA.2.12.1 변이 5.9%, BA.2.3 변이 5.3% 등이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개서 20주년 기념 '국민참여 공모전' 성료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가 지난 8일, 개서 2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양경찰,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점검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광양시청 자원순환과, 시민단체(해병대팔각회, 매화라이온스)와 합동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은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순천경찰,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집중단속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운)에서는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이륜차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담양소방, 주방후드 화재예방 당부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전국적으로 주방 후드와 덕트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무안소방,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형 무더위 쉼터 운영

무안소방서(박의승)는 독거노인·저소득층·주거취약 등 폭염 취약계층인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이동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중이다.

무안=이성기기자



광주보훈청,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가족 현장점검·특별위문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기 위한 현장점검 및 특별위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재환기자

흡연 등 국립공원 불법 집중단속...최대 200만원 과태료

7월16일~8월28일 성수기 집중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셋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다.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된다.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횡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에 공지한다.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에 공지한다. 또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총 2181건이다.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셋길출입 806건(37%),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에 집중단속을 실

시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초복 앞두고 사랑의 자장면 대접

초복을 나흘 앞둔 12일 부산 부산진구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식당에서 부산진구 중식봉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지역 어르신 800명에게 자장면을 대접하고 있다.

5년간 물놀이 사망 147명...8월초 가장 많아

'수영미숙' 최다...음주수영 25명 숨져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객이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총 147명이 숨졌다.

시기별로는 8월 사망 인원이 73명(49.7%)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7월이 56명(38.1%)이었고 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도 18명(12.2%)이 숨졌다.

기간을 쪼개보면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사망 인원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7월 하순(29명), 8월 중순(28명), 7월 중순(21명), 6월 초순(8명), 6월 하순(7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4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8명

(19.0%), 20대 26명(17.7%), 40대 21명(14.3%), 30대 15명(10.2%), 10세 미만 8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장소별로는 물놀이 시설로 관리되는 해수욕장(18.4%·27명)과 유원지(0.7%·1명)보다 상대적으로 안전 시설이 덜 갖춰진 하천·강(40.1%·59명)과 계곡(26.5%·39명), 갯벌·해변(14.3%·21명)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 '수영 미숙'(31.3%·46명)이 가장 많았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29.3%·43명), '음주 수영'(17.0%·25명), '투브 전복'(8.8%·13명), '높은 파도·급류'(6.8%·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주 수영의 경우 음주 가능한 연령이 만 19세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요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즐기고,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거나 유속이 빠른 위험·금지 구역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호우나 이안류 특보가 내려졌을 때에는 즉각 물놀이를 중단해야 한다.

물놀이 전에는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팔→얼굴→가슴)부터 물을 적신 후 입수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때에는 보호자가 항상 지켜보며 장난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김재환기자

기동취재본부